

크스님 수행한담

만족할 줄 아세요



일우스님은 토굴 앞마당에서 마곡사 군왕재를 바라보며 만공스님의 선기(禪氣)가 서린 비로봉을 생각한다. 군왕재 아래에는 마곡사 선방이 있다.

었다리면봉지만 하나 달랑 있었습니...

제 그릇에, 제 처지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악한 일 짓지 말고 착한 일 많이 하라' 욕심 때문에 실천 어렵죠

그래서 본래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본심으로 돌아가기 위해 늘 절을...

의 깨침에는 오직 자신을 버린 용맹정진과 이심전심이 필요할 뿐입니다. 또 깨달음의 실체는 소박합니다. 말이나...

팔만사천 법문 모두가 행복의 길 안내 절은 하심 공부...많이 할수록 좋아요

는 사실을 비로소 느끼게 됩니다. 물질이 많이 가졌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남보다 가진 것이 적어 사는...

는 일이 많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의 주위에는 점점 사람들이 멀어져 갈 것이고 그는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좀체로...

마음공부를 정점할 때 꼭 도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할' 한다고 해서, 또 부처님의 8만4천법문을 입으로 대고 한들 그것이...



김 건 웅

(해인실업 대표)

94년 긍정 불교대학에 입학했다. 이를 계기로 혼자서 경전을 보며 해 오던 불교공부를 신심이 두터운 여러 도반들과 함께 하게 돼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이 때 관음포교원에서 보명스님으로부터 원진강독을 배운 경전공부가 포교는 물론 나의 수행 생활에 기본이 되었다.

초등생 아들의 질문 화두삼아 정진 외국인·신병교육대 전법 '큰기쁨'



하게 된 것은 불교가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운허스님의 수상상이시던 월운스님께서 출가를 권할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관세음보살의 협애의 지하려...

려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에 적극 동참하게 되었다. 96년에는 스님을 모시고 동굴 불교현황을 둘러보았다. 그때 나와 동행인들은 국제포교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포교원내에 국제포교부를 창립하고 외국인 포교를 시작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리 문화와 예술을 알리는 행사를 현재 19회까지 마쳤으며 매월 다양한 행사를 주관해 오고 있다.

우리 문화의 대부분이 불교문화이므로 타 종교를 믿는 이방인이 부담없이 우리문화를 접하는 사이 불교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문화의 우수성과 불교를 이해하는 그들을 보며 새로운 포교의 한 장을 연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또 한달에 한번씩 부산 53사단 신병 교육대에서 신병 3백여명을 대상으로 부처님 법을 전하는 것도 나에게 큰 기쁨이다. 무상으로 삼는 금강경의 가르침을 가슴으로 유명을 달리신 아버님의 죽움으로 모든 의욕을 상실하고 싶었다. 태어남과 죽음도 모두 한 조각 구름이

다. 정리=오종욱 기자 (gobaou@buddhapia.com)

현대불교 '98년도 합본 제4집 발간 안내

삼보에 귀의하십니다. 21세기 희망찬 내일 불교의 선명한 비전을 제시하는 '현대불교신문'에서 '98년도 합본 제4집을 발간하셨습니다. 어느 해 보다 더욱 더 다사다난했던 '98년도의 불교계 모든 소식들을 만날 수 있으며 또한 쉽게 친견하기 어려운 크스님들의 법문은 물론 불자들에게 유익한 생활의 정보와 지혜의 내용을 함께 모았습니다. 포교와 수행의 지침이 될 '현대불교신문'을 보관하시거나 하시는 여러 스님들과 불자님들을 위해 '98년 1월 1일자(157호)부터 12월 30일자(204호)까지 총 48호 1,172페이지로 불교를 쉽게 배우고자 하시는 불자님들께 더 없는 불교의 길잡이가 될 것이며, 사찰의 스님들께는 참다운 수행의 참고서가 될 것입니다. '현대불교신문' 합본집 제3집('97년판)과 제4집('98년판)을 한정 판매하오니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과 주위에 법보시 하실 분은 전화로 신청하시면 입금 확인 후 3일 이내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불자님 계산 곳에 언제나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구 입 안 내 ○ 합본 제4집 : 1998년 1월 1일자(157호)~1998년 12월 30일자(204호) 총 48호 ▶ 1,172페이지. 신문판형(크기: 40cm x 55cm) ○ 구입 가격 : 1권 6만원(발송비 5천원 별도), 제3,4집 : 11만원(발송비 5천원 별도) ○ 입금 계좌 : 국민은행 023-25-0007-617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농협 053-01-227471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우체국 010041-025524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구입문의 및 신청 : 경영관리국 기획관리부 (담당자 이신정) 전화: (02)737-8881. 팩스: (02)737-0697 ✦ 신속한 발송을 위하여 입금 후 꼭 전화를 부탁드립니다.

불교와 문화 Buddhism & Culture 1999년 봄호 인문포커스 / 한국불교의 거목 찾아서 · 화승편 근.현대 재가불자들 중 각 분야별로 불교활동의 헌신적인 업적을 남기고 타계한 선각자의 삶을 조명하여 재가불교운동의 당위성과 모범적인 불자상을 정립한다. - 화엄학과 실존연구의 대가 한국 김성익 박사 - 근대 한국불교학의 태두 포광 김영수 선생 우리시대의 匠人 / 불교문화를 빛낸 사람들 우리의 고유한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가는 젊은 장인들의 숨결을 느껴본다 - 전통 장호(장과 문) 장인, 심용식 씨 사찰과 자연생태 / [1] 해우소 근심을 푸는 곳이라는 절집 화장실, 해우소(解憂所). 최근 환경미화물 이유로 사라져가는 해우소의 자연친화적인 구조와 형태를 소개한다 고전산책 / 백과 스님과 추사 김정희의 對論 4 백과 스님의 원지 - 김환관 정희에게 답함 특별기고/ 인기사 보각국사비 복원기 서평 - 허은 스님의 '참선요지' 불교계 주요인사(1998.12 - 1999.3) 불교관계는 총합역인(1998.12 - 1999.3) 불교와문화 전화 02-719-2606, 전송 02-719-5052 121-050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 대한불교진흥원 출판부